HIGH CLASS SENIOR SOCIETY &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017 WINTER VOL. 33

THE CLASSIC 500

ICON
소통의 대가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법

TRAVEL
대자연과의 교감,
진짜 겨울을 만나다
캐나다 퀘벡 시티

HOTEL
Winter Festive
펜타즈 호텔

CONTENTS

02	INSIGHT	춤, 그 황홀한 교감
04	ICON	소통의 대가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법
08	CULTURE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훈훈한 연말 공연
10	TRAVEL	대자연과의 교감, 캐나다 퀘벡 시티
18	PEOPLE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유문상 회원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건강한 습관의 힘, 지태욱 회원
22	COMMUNITY	하모니 합창단,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되다
24	PENTAZ HOTEL	Winter Festive 펜타즈 호텔
32	LA GOUTTE	라구뜨 연말연시 특별한 만찬
38	HEALTH	한겨울 건강을 책임지는 SPA & GOLF
42	FINANCE	KB국민은행 스타시티점 PB센터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 팁
44	NEWS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
		더 클래식 500 소식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사내보 / 계간 THE CLASSIC 500 겨울호 통권 33호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인** 정동기
발행처 THE CLASSIC 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82-2-2218-5000 www.theclassic500.com **광고문의** +82-2-2218-5546
촬영 노병연, STUDIO LAON 김상덕 **디자인&기획·편집** hongdesign& hongC +82-2-6916-4400

동화처럼 마법처럼

Happy New Year

눈과 얼음이 만들어낸 겨울왕국, 캐나다 퀘벡 시티는 겨울이라는 대자연과의 교감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연말연시, 더 클래식 500 〈매거진〉에서도 마법 같은 교감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몸짓으로 전하는 이야기인 춤, 우리 시대 소통의 대가들,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게 할 연말 공연과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공연까지.
올해도, 내년도 늘 지혜와 공감의 이야기를 품고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르누아르, 〈물랭 드 라 갈래트의 무도회〉, 1876년, 캔버스에 유채, 1.31m x 1.75m

춤, 그 황홀한 교감

춤은 사람과 사람, 무대와 객석 사이
보이지 않는 대화다. 나이, 성별, 직업, 국적 그리고
신체 상태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언어다.

글 이단비 (방송작가, 무용칼럼니스트)

지난 2014년, 파리를 떠들썩하게 만든 공연이 있었다. 속칭 '몸빼바지'를 입은 한국의 할머니들이 막춤을 추며 파리의 한 극장 무대를 장악한 것이다. 이 정도면 스텝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춤 공연의 형식을 아예 무시했다. 그런데도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라는 이 작품은 파리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고단한 인생을 버티고 살아내어 온 할머니들의 몸의 역사를 춤으로 기록하겠다는 시도였다. 이처럼 최근 장르의 파괴와 통합이 실험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춤들이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유래를 찾자면 이사도라 덩컨(1878~1927)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발레가 요구하는 모든 형식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표현력,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을 추구했다. 그녀가 개척한 모던댄스는 20세기 이후 더 혁신적인 모양새로 발전하며 컨템포러리 댄스로 이어지게 됐다. 오늘날 그 어떤 움직임도 춤이 될 수 있다.

세월에 따라 춤의 개념과 목적은 변화했다. 원시시대의 춤이 주술과 염원, 질병 치료용이었다면 고대에는 제례의식이었다. 16세기에는 귀족들의 사교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행해졌고, 17세기에 와서야 전문적인 직업 예술로 인정받았다. 21세기의 춤은 사람과 사람, 무대와 객석 사이 보이지 않는 대화다. 나이, 성별, 직업, 국적, 그리고 신체 상태를 넘어선 모두의 언어인 것이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막춤' 공연으로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 탱고와 스윙으로 대화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춤을 보는 일도, 내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며 춤을 추는 일도. 춤을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미 자격은 충분하다.

소통의 대가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법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

앙겔라 메르켈

1996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메르켈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기대와는 달리 메르켈이 기념촬영을 할 새도 주지 않았던 것. 그녀는 수용소 안에 머물던 10대 소녀와 짤막한 대화만 나누고 떠났다. 보여주기식 '쇼'는 없었다. 정치인 메르켈이 보여준 진정성이었다.

최연소,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4선 연임에 성공하며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 단 한 차례의 스캔들이나 부패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다. 독일 최고 지도자지만 총리 관저도 마다하고 개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20년 된 블라우스를 손질해서 입는다.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독일 국민들은 마치 이웃집 사람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메르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게 메르켈 인기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끈기 있게 타협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력, 경청의 리더십은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 힘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 힘은 때로 단호하다. 정치적 양부나 다름없는 헬무트 콜이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리자 단호하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부드럽지만 결코 유약하지는 않은 메르켈. '엄마(Mutti) 리더십'이라는 별명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Wikimedia Commons

온유한 말 한마디가 지닌 힘

혜민스님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법으로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는 혜민스님. 그의 이력은 실로 화려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거쳤다. 사람들은 왜 저 '스펙'을 가지고 스님이 되었느냐고 묻는다. "스펙은 과거일 뿐,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뿐이지요."

혜민스님은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으면서 '삶이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소통의 벽을 허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종교인으로서 파격적인 행보다. 스스로 속인들과 섞인 그는 결코 권위적이지도, 섣불리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격의 없지만 예의 있고, 쉬운 말로 표현하지만 가볍지는 않은 메시지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평생 단 한 순간쯤은 내가 진정한 '갑'인 인생을 살아 보고 싶었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헐떡이는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받아도 진짜 내가 주인인 삶을요."

모두가 남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그의 고백은 대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용기를 심었다. 어쩌면, 그가 건네는 말들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모른다. 다만 그 온유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소란을 걷어내고 고요한 용기를 불러오는 힘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 수오서재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말들은 소음이 되어 공중에서
흩어지고 만다. 불통보단
소통이 대세라는 시대.
좀 말 같은 말을 들어보고
싶다면, 말 같은 말을 해보고
싶다면 이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귀 기울여 보자.

글 김은성 에디터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된 대화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저 또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출연자를 위로하며 건넨 이 고백은 전 세계 시청자를 울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만 해도 성폭력에 관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논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출연자가 울면 함께 부둥켜 울고, 웃으면 함께 발을 동동 구르며 웃는 토크쇼 진행자. 인기스타는 물론, 대통령부터 평범한 이웃까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 오프라 윈프리에게 '대화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전혀 과하지 않아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던 그녀는 앵커로 방송계에 입문했지만 남다른 공감력 때문에 오히려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앵커 자리에서 하차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린 〈오프라 윈프리 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25년간 35,000명과 소통하며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한결같았다. 출연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작은 이야기도 허투루 넘겨 듣지 않는다. 방송을 위해 감정을 과장하거나 꾸며내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테크닉의 불과했다면 결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고, 변화시키지 못했으리라.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녀의 대화 기술은 진정성이었고, 그 진심은 브라운관 너머의 시청자들에게까지 가닿았다.

모두에게 평등한 목소리를

마크 저커버그

1990년대 중반, 치과의사였던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환자가 올 때마다 병원 직원이 집까지 찾아와 외치는 소리에 질려버린 상태였다. 그 모습을 보고 10대 소년 마크는 아버지를 위해 병원과 집의 컴퓨터를 연결해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이 결심이 훗날 전 세계인들의 소통 방법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이때 자신의 첫 작품인 메신서 '저크넷'을 만들며 사람을 이어주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 후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만든 서비스 '페이스북'은 오픈한 지 3주 만에 가입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다. 본래 자신의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으나, 이내 다른 학교 학생들의 가입요청이 밀려들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시작이었다. 2017년 기준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약 20억 명. 그는 이제 전 세계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는 '인터넷오알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는 거예요. 몇 세대 전의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고 의견을 발표할 곳도 마땅치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자 수를 50억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저커버그. 그가 제공하는 건 단순히 인터넷 신호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목소리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훈훈한 연말 공연

세상에는 부모, 형제자매, 연인, 아주 얕은 접점의 관계까지 참 다양하게 맺어진 인연들이 많다. 이렇게 묶인 우리들은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답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할 이야기를 담은 훈훈한 공연을 소개한다.

글 안혜원 에디터
자료제공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HJ 컬쳐, CJ E&M, 신시컴퍼니, ㈜오디컴퍼니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 시인이었던 '백석'과 평생에 걸쳐 그를 사랑했던 기생 '자야'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펼쳐진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영감을 얻은 이 뮤지컬은 두 사람의 손짓 하나, 걸음 하나까지도 고스란히 담아 감동을 전한다.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모두 백석의 시에서 가사를 따온 덕분에 그의 사랑과 애환이 노랫말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

위치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 **기간** 2017. 10. 19 — 2018. 01. 28

친애하는 나의 동생 테오에게
〈빈센트 반 고흐〉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에서는 서로에게 감성적인 존재이자 기둥이었던 형제의 이야기를 고흐가 보냈던 편지로 풀어낸다. 편지에는 자신의 일상과 우울증, 작품에 대한 정보, 시시콜콜한 연애담과 더불어 동생을 향한 애정이 가득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진한 형제애를 가만히 품어주는 고흐의 명작들은 무대 위에서 재현되어 살아 움직이며 관객들을 위로한다.

위치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기간** 2017. 11. 04 — 2018. 01. 28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얼라이브〉

〈햄릿:얼라이브〉는 2006년, 뮤지컬 배우 홍광호와 작곡가 김경육이 중앙대학교 공연에서 처음 선보였던 뮤지컬 〈햄릿〉을 진화시킨 작품이다. 햄릿의 모습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기만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인물로 표현하였다. 비슷한 듯 다른 뮤지컬과 원작을 서로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

위치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 **기간** 2017. 11. 23 — 2018. 01. 28

날갯짓을 준비하는 한 마리의 새
〈빌리 엘리어트〉

영국 북부의 탄광촌에 사는 빌리가 우연히 발레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찾았다. 처음에 빌리의 꿈을 완고하게 부정했던 아버지도 아들의 춤을 본 뒤에는 결국 재능을 인정하고 응원한다. 빌리 가족이 각박한 삶에서도 놓지 않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진한 가족애와 부성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치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 **기간** 2017. 11. 28 — 2018. 05. 07

꿈의 여객선, 그 5일의 기록
〈타이타닉〉

뮤지컬 〈타이타닉〉은 1912년 당시 최신형 선박이었던 타이타닉 호가 눈앞에 나타난 암초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를 가득 안고 배에 탔을 승객들의 설렘과 사랑, 갑작스럽게 맞이한 비극과 슬픔, 그리고 그런 불행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희생은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위치 잠실 샤롯데씨어터 / **기간** 2017. 11. 10 — 2018. 02. 11

Canada Quebec City

대자연과의 교감, 진짜 겨울을 만나다

© 캐나다 관광청

진짜 겨울은 이런 게 아닐까. 마법처럼 새하얀 풍경,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로맨틱한 거리, 세계 최대 겨울 축제, 아이스 호텔의 동화 같은 하룻밤까지. 겨울왕국 캐나다 퀘벡 시티에서 진정한 겨울의 매력을 만끽해보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 김신 · 은탁 커플이 알콩달콩 거닐던 캐나다 퀘벡 시티. 아름다운 도깨비 커플의 러브스토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배경으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캐나다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퀘벡 시티는 중세 유럽에 온 것처럼 고풍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명소들로 가득하다. 전체 인구의 90%가 프랑스 출신에 길거리의 간판과 상품들, 이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모두 프랑스어다.

퀘벡 시티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인 퀘벡주의 주도로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1765년부터 총 길이 4.6km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성곽이 탄생됐다.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성벽은 여행자들에게 퀘벡 시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주는 좋은 산책로가 되는 동시에 퀘벡 시티를 어퍼타운(Upper Town)과 로어타운(Lower Town), 신시가지, 구시가지로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퀘벡 시티는 도시의 매력을 담은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 참 좋은 곳이다.

1

2

1 프티샹플랭 거리
2 아브라함 평원

퀘벡 시티 골목골목
새하얀 동화 속 나라를 걷다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난 400m 길이의 뒤프랭 테라스(Terradsse Dufferin)는 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알맞은 코스다. 강을 향해 벤치가 놓여 있어 앉아서 쉬며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기에 좋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한층 운치 있어지는 샤또 프롱트낙 호텔과 세인트로렌스 강 위의 불빛 덕분에 또 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뒤프랭 테라스 산책로는 아브라함 평원까지 이어진다. 퀘벡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인 아브라함 평원은 1759년,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아브라함 평원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 하여 현재의 이름을 얻었다. 지금은 주민들이 하이킹과 조깅을 즐기는 평화로운 장소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에 올라서면 퀘벡 시티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뒤프랭 테라스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와 로어타운에서 처음 마주하는 풍경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인 프티샹플랭 거리(Petit Champlain)이다. 〈도깨비〉에서 김신과 은탁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빨간색 문이 바로 이 거리에 있다.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 퀘벡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가득 들어선 프티샹플랭 거리는 로어타운 내에서도 가장 볼거리가 많다. 상점마다 걸어놓은 꽃들과 개성 있는 간판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이 프티샹플랭 거리 북쪽에 위치한 플레이스 로얄(Place Royale)은 퀘벡 시티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이다. 좁은 골목과 돌로 만든 옛날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갤러리를 비롯해 부티크,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윈도우 쇼핑을 즐기거나 여유롭게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다.

100년 전통과 품격의 샤또 프롱트낙 호텔,
눈 위의 하룻밤 아이스 호텔

세인트로렌스 강이 내려다보이는 어퍼타운의 중심에 우뚝 솟은 샤또 프롱트낙 호텔(Chateau Frontenac Hotel)은 청동 지붕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퀘벡 시티의 랜드마크이다.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호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캐나다의 매켄지 킹 수상이 만나서 퀘벡 회담을 열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1893년 완성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호텔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이드와 함께 호텔을 둘러보고 있노라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유명인사와 그들이 남긴 다양한 에피소드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아이스 호텔도 빼놓을 수 없다. 매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개장하는 아이스 호텔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방이 3,000㎡, 천장 높이 5.4m에 이르는 거대한 눈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15,000톤의 눈이 쓰였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인 만큼 투숙객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에게도 매일 아침 10시에 개방된다. 호텔 그랜드홀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예배당, 2개의 예술관, 극장 등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호텔을 구경 외에도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슬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슈잉, 스노모빌, 개 썰매, 낚시 등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1

2

1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연상케하는 아이스 호텔
2 퀘벡 시티 어디에서나 보이는 랜드마크
샤또 프롱트낙 호텔
3 해질녘 오색 조명을 켜기 시작하는
샤또 프롱트낙 호텔

3

1

2

1 퀘벡 윈터 카니발
2 퀘벡 윈터 카니발
3 퀘벡 윈터 카니발, 개 썰매

세계 그 어느 겨울 축제보다 성대한
퀘벡 윈터 카니발

퀘벡 시티의 윈터 카니발은 세계 그 어느 겨울 축제보다도 성대하다. 프랑스어로 '좋은 사람'이란 뜻을 지닌 눈사람 마스코트인 '본옴(Bonhomme)'의 탄생과 함께 1950년부터 매년 겨울 2주간 열리는 퀘벡 윈터 카니발은 그 참여자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스노우 래프팅, 눈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레포츠와 콘서트, 화려한 퍼레이드 등 눈과 얼음을 이용한 온갖 행사와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된 1955년에 마스코트로 등장해 해마다 축제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본옴은 축제 시작 전 퀘벡 시티 시장으로부터 통치권을 상징하는 열쇠와 함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얼음궁전에서 윈터 카니발의 상징적인 지휘를 넘겨받는다. 본옴과 함께 퀘벡 윈터 카니발의 상징으로 꼽히는 얼음궁전은 만드는데 무려 9천 톤의 눈과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행사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눈 위에서 펼쳐지는 스노우 래프팅, 카약 경주, 눈 조각 대회, 개 썰매, 빙판미니골프, 스케이트, 각종 콘서트, 나이트 퍼레이드, 빙벽타기, 눈마차, 그리고 스노우 배스(Snow Bath)다. 특히 스노우 배스는 미리 신체검사를 받은 남녀노소가 영하 20도의 추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눈으로 목욕을 하는 이벤트로 퀘벡 윈터 카니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로 손꼽힌다.

이 외에도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대형 풍선 캐릭터 퍼레이드, 축제의 왕 본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차량 행진 등 주 · 야간으로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올겨울 축제 기간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3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더 클래식 500 유문상 회원

편집실로 전달된 강연 후기 한 편. 예일대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을 말한다' 강연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더 클래식 500 유문상 회원의 글이었다. 유 회원은 오랜 세월로 응축된 지혜와 경험, 그리고 강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담담하게 펼쳐놨다.

글 이영진 에디터

유한하기에 더 가치 있는 삶

"내 나이에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대체로 내 또래들은 죽음 자체만 생각해서 불편해하고 외면하려고만 해요. 이 강연을 추천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이 죽음보다 남은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졌으면 해서."

유문상 회원은 죽음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신문을 챙겨 읽고, 틈틈이 좋은 강연을 들으며 여전히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유 회원. 그는 얼마 전, 17년 동안 예일대를 대표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셸리 케이건(Shelly Kagan) 교수의 논문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논문 및 강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유한한 과정이 있기에 삶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고 빛난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되고, 살아가면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누구나 언젠가 죽지만 죽을 날을 모르고 살잖아요. 참 하늘의 깊은 뜻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유효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인생이니 하루하루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 되고요."

유 회원은 행복한 삶에 정답은 없지만 셸리 케이건 교수의 말처럼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가정 하에 그 3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다. 그 답이 결국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일 것이라고.

여럿이 더불어 온 행복한 인생길

행복한 삶의 궁극적 목적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셸리 케이건 교수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돌보는 것, 두 번째는 풍부한 경험으로 삶의 그릇을 채우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맥락으로 보자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 온 유문상 회원은 행복한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인 셈이다. 해방 직후,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주경야독의 시간을 버티어 당당하게 고등학교 교사가 된 유 회원. 34년 동안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오롯이 교육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생을 관통한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을 참 존경해요. 한글을 창제해 만백성이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나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섰습니다. 나라가 요하는 진정한 지식인 양성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지요."

유문상 회원의 나눔 활동은 2011년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한 이후로 가속도가 붙었다. 부부 내외가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에서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 기회만 주어진다면 교사의 경험을 살려 고전문학이나 역사 관련 강의로 재능기부도 할 계획이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유 회원. 그는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나누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나 혼자만 잘나서 뭐해. 이웃을 위해 봉사할 길이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참여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건강한 습관의 힘

더 클래식 500 지태욱 회원

젊은 사람들도 외출을 꺼리게 되는 날씨, 추운 것도 잊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지태욱 회원의 모습에는 활력이 넘쳤다. 지난해 더 클래식 500이 선보인 스마트 슈즈의 매력에 푹 빠져 격일로 5km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그의 열정적인 하루를 뒤따라가 보았다.

글 안혜원 에디터

나를 걷게 하는 스마트 슈즈의 매력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지태욱 회원은 스마트 슈즈의 끈을 동여매고 더 클래식 500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걸어간다. 1년 전에 만난 스마트 슈즈는 땅을 밟고 나아가는 일의 즐거움을 심어주었다. 발걸음을 뗄수록 혈액 순환도 원활해지니 고혈압과 당뇨병 걱정은 줄어들었고, 다리 근력은 늘었다.

"출근길에 스마트 슈즈를 보면 얼른 신어야겠다, 걸어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핸드폰 앱으로 얼마나 걸었나 확인하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목표량과 남은 걸음 수가 한눈에 보이니 도전 정신도 생기고요."

지태욱 회원에게 건강한 습관을 심어준 스마트 슈즈는 연령과 체력, 걸음 패턴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걸음 수를 제안하고 보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더 클래식 500의 헬스 케어 서비스이다. 핸드폰과 연동된 센서가 신발에 부착되어 그 날의 보행 수를 측정해준다. 걷기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아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여러 신체 조건을 체크하더니 하루에 7,000보를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니 성취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점점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걸음을 늘리다 보니 최근에는 10,000보까지도 걷고 있어요."

걷기를 즐기게 된 것에는 더 클래식 500의 위치도 한몫했다. 건국대학교와 어린이 대공원, 뚝섬유원지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거닐다 보면 힘든지도 모르겠다는 지 회원의 입가에는 유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즐거운 삶을 위한 꾸준한 건강 관리

스마트 슈즈로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는 헬스와 격일로 하며 운동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지태욱 회원. 그가 더 클래식 500에서 가장 즐겨 찾는다는 피트니스 클럽에 가는 시간은 꼭 따로 비워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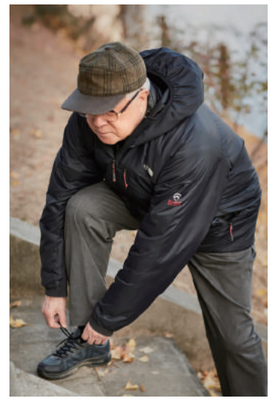
"7년 전 입주할 때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시켜준 맞춤 운동 메모리와 지금의 운동량을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같은 운동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건 체력이 거의 똑같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매주 토요일 식사 전에 혈당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메디컬 서비스 덕에 병원에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

"몇 년 전,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연결되어 즉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요."

지 회원은 더 클래식 500의 수많은 장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서비스를 최고로 꼽는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담당 의료진이 언제든 맞아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더 클래식 500에서 이제까지 지켜온 건강한 습관을 이어나가며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란다. 뜻 맞는 회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것을 보러 다니는 행복을 오래 느끼기 위해 지태욱 회원은 오늘도 기운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되다

한국가곡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늦가을 향기의 여운이 남은 지난 11월,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클래식 500의 하모니 합창단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흥겨운 시간을 선물했던 한국가곡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의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았다.

지난 11월 9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윤이상, 김대현, 김순남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아직도 기다림은' 공연이 열렸다. 더 클래식 500, 한국가곡학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고 한국가곡합창단과 (재)광진문화재단, 내마음의노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 음악계의 큰 별이었던 이들을 기리는 행사인 만큼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음악회에는 노래와 음악으로 삶에 활력을 찾고 나눔과 봉사로 감동을 선사하는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이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날 연주회 1부에서는 한국가곡합창단의 〈남촌〉을 시작으로 경동초등학교합창단의 재기발랄한 무대가 이어졌다. 세 번째 순서로 반짝이는 진홍빛 상의 드레스를 멋지게 차려입은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19명과 지휘자 권동현이 무대에 올랐다. 하모니 합창단은 피아니스트 정소영과 〈산촌〉, 〈보리밭〉으로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하모니 합창단과 경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꼬부랑 할머니〉와 〈섬집 아기〉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무대로 꾸며져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전했다. 노래하는 이들은 물론, 듣는 이들의 얼굴에서도 행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별 헤는 밤'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인 윤이상의 동요 〈반딧불〉을 비롯해 월북 작곡가 김순남의 〈철공소〉, 〈바다〉,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김대현의 〈자장가〉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소프라노 김정연,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김승직, 바리톤 송기창 등 국내 성악가들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소리나눔앙상블 등이 현악앙상블 더 끌림의 반주로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품격 있는 삶, 하모니 합창단

한국가곡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은 2010년 3월에 창단해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 단체의 초청 공연에 참가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해왔다. 더 클래식 500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합창을 통해 여가를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물론,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지역문화예술발전에도 기여하며 더 클래식 500의 자랑거리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Winter Festive
PENTAZ HOTEL

반짝이는 야경 아래 특별한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연말 모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에서
도심 야경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즐겨보자.

글 이영진 에디터
사진 노병연 **스타일링** 안유미(FOOD&PROP)

내 집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파티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완벽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컨디션, 중후함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공간이다. 특히 다이닝 공간에는 와인셀러, 오븐, 조리도구 등 프라이빗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다.

행복한 연말연시는
펜타즈 호텔과 함께

잠드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연말 파티의 설렘과 즐거움.
거실에서 독립되어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의 침실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계획에 들떠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다. 세련된 유럽풍 스타일의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는 물론 온도와 습도, 환기 및 냉난방을 생활 패턴에 맞춰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픈 당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프리미엄 레지던스 펜타즈 호텔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레지던스 호텔이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타 호텔에 비해 넓고 쾌적한 객실과 품격 있는 서비스, 다양한 부대 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펜타즈 호텔의 다양한 부대 시설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온천 성분이 함유된 명품 스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야외 수영장, 그 외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와 와인 레스토랑 앤 바 '라비앙로즈', 컨템포러리 카페 '마실' 등에서 격조 있는 시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첫 번째 이벤트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호텔 부문 대상 수상을 기념해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예약한 고객에게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하는 와인 1병을(일 1명), 네이버 블로그에 이용 후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3~4월 주중 스위트룸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이용 후기 마감은 2018년 2월 11일까지이다. 두 번째 혜택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 오픈을 기념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와인 FREE' 이벤트다. 카카오톡 앱에서 펜타즈 호텔을 검색하고 와인 FREE 이벤트 게시글에서 쿠폰 받기 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뒤 투숙 시 쿠폰을 프런트 직원에게 제시하면 하우스 와인 1병이 제공된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면 할인 혜택과 패키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펜타즈 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객실 문의 02-2218-5777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LA GOUTTE

어느덧 겨울의 중턱,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도 이겨낼
영양 가득한 라구뜨의
겨울 건강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보며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사진 노병연
스타일링 안유미(FOOD&PROP)

새해를 준비하는 라구뜨의

특별한 만찬

HOT

와사비를 곁들인 굴찜 |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굴을 찌고 와사비를 올렸다. 와사비의 알싸함이 굴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한다.

견과류를 곁들인 바게트 고구마 그라탱 | 구운 고구마를 우유, 크림, 치즈와 함께 끓였다. 바게트와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풍미도 가득하다.

인삼 갈비찜 | 라구뜨만의 오가닉 조리법으로 누린내를 잡았다. 육질도 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COLD

포항초 딸기 샐러드 | 딸기와 단맛이 강한 재래종인 포항초 시금치를 라즈베리 드레싱으로 버무리고 리코타 치즈를 올려 상큼함이 느껴진다.

민트향을 곁들인 말린 귤과 청포도 샐러드 | 말린 귤과 청포도에 화이트 와인 드레싱을 뿌리고 민트잎을 올려 깔끔한 풍미가 가득하다.

구운 미니 양배추와 견과류 샐러드 | 미니 양배추를 소금과 후추, 올리브 오일로 버무리고 오븐에 구운 뒤 견과류를 뿌려 건강한 맛을 더했다.

KOREAN

갑오징어 미나리 무침 |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갑오징어를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무쳤다. 갑오징어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질로 다이어트에 좋다.

시래기 잡채 | 삶은 시래기를 당면과 함께 볶아 잡채로 완성했다. 시래기에는 철분이 많아 빈혈에 효과적이고 칼슘과 식이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가 억제된다.

곤드레 비빔밥| 곤드레나물과 각종 채소, 해조류가 비빔밥으로 탄생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많이 나는 곤드레나물은 단백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하다.

톳과 유부 절임 | 불린 톳과 잘게 썬 유부를 함께 절였다. 톳에는 칼슘과 요오드,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좋으며 식이섬유소가 풍부하다.

고등어 스시 |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초밥으로 빚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

방어 스시 | 노화 방지와 피부 활성화에 좋은 방어를 초밥으로 만들었다. 방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JAPANESE

CHINESE

매생이 수프 | 매생이를 부드러운 수프로 끓였다. 매생이는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을 뿐 아니라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난자 완스 | 곱게 다진 고기로 빚은 완자를 버섯과 죽순, 청경채 등과 함께 볶은 뒤 설탕과 굴소스 등으로 만든 소스로 끓여 깊은 풍미를 완성했다.

BAKERY

딸기 생크림 케이크 | 부드럽게 구운 케이크 시트 위에 생크림을 샌딩한 뒤 딸기를 얹었다. 피부 보호와 스트레스 해소, 위장 보호에 좋은 딸기가 달콤함을 더한다.

팡도르 | 뭉뚝한 원뿔형 몸통에 여덟 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 모양의 이탈리아 전통 크리스마스 빵이다. 바닐라 향이 풍부하며 달고 부드럽다.

구겔호프 | 프랑스 그랑테스트 지역의 발효 과자이다. 견과류와 건포도, 초콜릿을 넣은 브리오슈 반죽을 왕관 모양의 틀에 넣어 구워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슈톨렌 |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독일식 과일 케이크이다. 빵에 건포도와 설탕에 절인 과일, 아몬드와 향신료를 넣어 구워 슈거파우더를 뿌려 완성했다.

문의 02-2218-5770

어느덧 찬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이번 겨울,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스파와 골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온천 성분이 함유된 천연 암반수 스파부터 첨단 시설과 과학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실내골프장까지, 펜타즈 호텔에서 올겨울 진정한 심신의 힐링을 만끽해보자.

SPA & GOLF

한겨울 건강을 책임지다

1

S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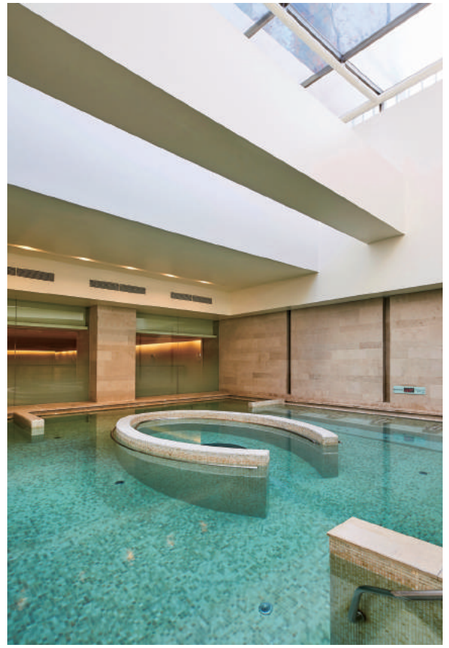
온천 성분 함유된 천연 명품 암반수

펜타즈 호텔의 스파는 온천 의학 효능 연구의 대가인 아가시유코 박사와 도쿄 중앙온천연구소가 그 효능을 입증한 곳이다. 830m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 올려 다양한 미네랄과 알칼리 성분, 유황수소 등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암반수는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 특히 알칼리 성분은 피부에 순하고 피부의 각질층을 녹이며 보온성이 높아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습진 등에 도움이 된다. 유황수소 성분은 말초 혈관을 넓히는 작용이 강하며 말초순환장애, 동맥경화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펜타즈 호텔의 스파는 하이드로테라피부터 이벤트탕까지 탕별로 특징과 효능이 있어 한겨울 힐링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하이드로테라피는 수압과 마찰을 이용해 전신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는 총 16개의 수중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좋다. 탄소 가스가 함유된 히노키 탄산탕은 혈류 촉진으로 냉한 체질 개선 효과가 있으며,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우윳빛 상태의 이온탕은 몸속 세포에 흡수가 가장 잘되는 사이즈의 물 분자가 피부에 남아 있는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도록 도와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한다. 페퍼민트, 쑥, 솔잎, 로즈메리, 재스민, 라벤더 등 6가지의 종류를 일별로 교체하는 이벤트탕은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펜타즈 호텔의 스파는 2,640㎡의 여유로운 공간에 이벤트탕, 자쿠지, 하이드로테라피, 습식 도크, 건식 도크, 찜질방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으며, 파우더 룸, 수면실, 휴게 존, 웰빙 존, 토털 케어 등 한 차원 높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SWISPA는 특급호텔 운영진이 함께하는 동양과 서양이 결합된 테크닉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 주는 편안한 휴식처로 토털 바디케어, 두피 헤어케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관리할 수 있다.

2



3

1 일별로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는 이벤트탕 등 다양한 스파를 갖춘 펜타즈 호텔 스파 시설

2, 3 수압과 마찰을 이용해 전신 마사지 효과가 있는 하이드로테라피

1

2

GOLF

첨단 시설과 수준 높은 강습

실내 골프 연습장도 그 수준과 노하우에 차이가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골프장은 2,310㎡의 여유로운 공간에 타석마다 인텔리전트 모션 레코더(IMR)와 오토티업기 등의 첨단 시설과 천연 잔디에 가까운 경사면, 평지면 등 두 개의 퍼팅장과 먼지 없는 규사를 사용한 벙커장, 최신 모델의 골프존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또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피트니스 골프는 첨단 시설에 수준 높은 일대일 맞춤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프로 골퍼가 과학적 프로그램의 맨투맨 맞춤식 레슨을 통해 회원들의 실전 감각을 효과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특히 골프 스윙 패턴 분석 시스템을 들여놓아 자세를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 골프 감각을 높이는 데 최적의 환경이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에서는 회원들이 손쉽게 골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골프 입문 과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건강은 물론 소질 계발을 위한 주니어 골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계적 수준의 파주 SMART KU GOLF PAVILION은 세계적 거장 로빈 넬슨이 설계한 골프코스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더 편리하고 환상적인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27홀 골프장으로 예약서비스 등 다양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218-5800

3

4

5

주요 시설

18타석(좌타석1대, 오토티업, 6m), 스윙분석기(IMR 18대), 골프존 스크린, 경사면 퍼팅장, 평지면 퍼팅장, 멤버십 라운지, 골프 락카(470개)

1 편안하고 품격있는 분위기의 라운지
2 첨단 시설을 갖춘 퍼팅장
3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들어서는 입구
4 최신 모델의 골프존 스크린
5 로비의 인포메이션

2017년에 이어 2018년 시장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새해에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이어나가야 할까. 고객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제안하는 KB국민은행 스타시티 PB센터의 최영자 팀장에게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 들어보았다.

KB국민은행
STARCITY PB CENTER

안정적인 자산 관리 팁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희망의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12월, 만감이 교차한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기에 더욱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더 클래식 500 입주민과 모든 분들이 다가올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KB국민은행 스타시티 PB센터를 찾는 고객들은 더 클래식 500의 입주민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한 지붕에 사는 가족처럼 느껴져 부모님을 대하듯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이고, 여느 센터와는 차별화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자산 증식보다는 그동안 잘 관리해온 부를 잘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해서 '중 수익, 중 위험'을 추구하는 편이다. 또한, 자산을 세법에 맞게 후손에게 잘 증여하고 부동산을 적절하게 양도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 지표는 호조를 띠고 있으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및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주변 상황 역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러한 흐름은 18년도에도 이어져 아직 오르지 못하고 저평가된 가치주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은 여전히 '적당한 수익'과 '편안한 투자'를 원한다. 과거에 투자손실 경험이 컸던 기억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7년간 자산을 관리하며 몇 차례의 시장 위기를 거치면서 헛되지 않은 기다림을 많이 보아왔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투자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객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합리적인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고자 항상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PB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객들의 각기 다른 성향에 맞게 상품을 제안하며 만족시키기 위해 힘쓴다면 고객에게 오랫동안 웃음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의 02-457-8229
위치 더 클래식 500 빌딩 A동 별관 2층

1

2

KB국민은행 스타시티 PB센터 추천상품

ELS, DLS 월이자지급식 (만기 일시지급식 신탁)

- 부동산 임대 수익을 관리하듯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추천

달러 ELS, 달러 DLS

- 원리금이 달러로 상환되는 상품
-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나 최근 연초대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화 투자에 관심 있는 경우에 추천
- 환차익 비과세

KB 고배당 커버드콜 펀드

- 고배당주를 매수한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월 옵션 프리미엄을 쌓아가는 상품으로 추가적인 배당 수익 기대 가능
- 상대적으로 변동성 적고 편안한 투자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 추천
- 매매차익,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미래시장과 미래산업 관련 펀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전반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
-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금 자산의 10~20% 정도를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이 있는 경우에 추천

1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KB국민은행 스타시티 PB센터 로비

2 더 클래식 500 별관 2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스타시티 PB 센터

커뮤니티 프로그램

2017. 12. 01 — 2018. 02. 28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강사명	수강료	● 개편 ● 신규개설
무료	**스포츠**					
	굿모닝! 아침체조	월~금	07:30 ~ 07:50	4층 다목적실1	이혜솜	무료
	검도	화, 목	19:00 ~ 21:00	4층 다목적실1	이봉주 회원(재능기부)	무료
	학습					
	실생활 스마트폰	화(월 3회)	10:00 ~ 11:00	4층 다목적실2	조민하	무료
	예술					
	● 신나는 노래교실	목	10:00 ~ 11:00	4층 다목적실2	이상혁	무료
	예술치유반	수	14:30 ~ 15:20	4층 다목적실2	황인옥	무료
	문향루(서예 동호회)	수	16:00 ~ 17:30	A동 7층 다알리아2	이병태	무료
유료	**스포츠**					
	바둑 입문반	목	16:00 ~ 18:00	A동 5층 스타 게임룸	조혜연	7만 원(입주회원20%할인)
	탁구교실(1:1 개인교습)	월, 수	13:00 ~ 15:30(10분)	B동 4층 GX룸	김연경	5만 원(1개월)
	한국무용	목	15:00 ~ 15:50	4층 다목적실1	김운자	5만 원(1개월)
	왕초보 라틴(차차차)	월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김복욱	5만 원(1개월)
	왕초보 모던(왈츠)	목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최찬영	5만 원(1개월)
	지루박&부르스 부부반(커플)	미정(3팀 이상 시 개강)		4층 다목적실1	박강현	5만 원(1개월)
	발레 기초	목	16:00 ~ 17:30	4층 다목적실1	최성이 회원	6만 원(1개월)
	1:1 개인교습	개별	시간조정	4층 다목적실1	김지은(문의:*5516)	50만 원(10회)
	학습					
	스마트폰 첫걸음	화, 목	09:00 ~ 10:2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컴퓨터 왕기초반	화, 목	10:30 ~ 11:5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A)	화, 목	14:30 ~ 15: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왕초보 영어회화	화, 목	16:00 ~ 16:5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B)	화, 목	17:30 ~ 18: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C)	화, 목	20:00 ~ 21:00	4층 다목적실3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초급)	월, 수	19:00 ~ 20:0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중급)	월, 금	10:00 ~ 11:3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	6만 원(3개월)
	예술					
	토요 남성 통기타	토	14:00 ~ 15:3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토요 여성 통기타	토	15:40 ~ 17:1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1:1 개인 통기타 교습	개별	시간조정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4만 원(1회)
	예술치유 미술중점반	목	15:00 ~ 17:00	4층 다목적실3	황인옥	8만 원(재료비 별도/월)
	그림교실(서양화)	토	19:00 ~ 21: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은규	6만 원(1개월)
	도예반 '마음을 빚다'	월	15:00 ~ 17: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재철	12만 원(재료비 포함/월)

동호회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하에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호회
일시 월 15:50 ~ 17:20
회비 연 24만 원

댄스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일시 월·화·목·금 09:00 ~ 09:50 (주 4회)
회비 연 35만 원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혹서기·혹한기 휴회)
회비 연 10만 원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바둑대회: 반기별 1회)
일시 금 15:00 ~ 18:00
회비 연 10만 원 (입회비: 10만 원)

검도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
강사 이봉주 회원 재능기부
일시 화·목 19:00 ~ 21:00
회비 무료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일시 수 16:00 ~ 17:30
회비 무료

인터넷
온라인상 메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탁구
순발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만인의 스포츠
일시 월·수 13:00 ~ 15:30
회비 개인 별도 (전문 코치의 1:1 맞춤형 지도)

겨울 이벤트 캘린더

12월

						1	2
	3	4	5	6	7	8	9
3주차	10	11	12	13	14	15	16
4주차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3주차 **패밀리 파티:** 2017 송년 패밀리 파티 '심수봉의 겨울 감성 콘서트'
동호회: 댄스동호회 송년 댄스파티
4주차 **자원봉사단:** 향기로 나누는 향수바자회(21, 22)
동호회: 바둑동호회 송년회
이벤트: 송년 탁구대회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주차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주차 **문화데이:** 무술년 신년운세

2월

					1	2	3
	4	5	6	7	8	9	10
2주차	11	12	13	14	15	16	17
4주차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주차 **자원봉사단:**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총회
4주차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 평창동계올림픽 투어(2박 3일)
문화데이: well-being, well-living, 그리고 well-dying

문의 02-2218-5000

제6회 문화전시전 ‘아름다운 휴식’ 개최

더 클래식 500이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6회 문화전시전 ‘아름다운 휴식’을 개최했다. A동 4층 다목적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더 클래식 500 내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그림교실, 도예반, 예술치유반, 문향루(서예)에서 한 해 동안 공들여 완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21일에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더 클래식 500 통기타반이 공연하며 자리를 빛냈다. 다양한 동호회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시니어의 열정을 지원하는 더 클래식 500은 문화 전시를 통해 복합문화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더 클래식 500 홈페이지, 웹어워드 대상 수상

WEB AWARD
14th WINNER

더 클래식 500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 웹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에서 호텔/리조트 홈페이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더 클래식 500은 펜타즈호텔과 시니어타운의 홈페이지를 각각 구성하여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웹과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상의 해상도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성도 생각했다. 이외에도 인쇄, SNS 공유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관리자와 소비자가 소통하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구현하여 호평을 받았다.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세종한글교육센터 라면 후원

더 클래식 500의 자원봉사단이 지난 3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한글교육센터를 찾아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라면 2,160개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식에는 정동기 더 클래식 500 사장과 박정희 자원봉사단 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라면은 중국, 동남아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종한글교육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다문화 가정에 전달된다. 정동기 사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연말인 만큼 더 클래식 500은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7년차를 맞이한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은 쌀과 라면, 의료비, 장학금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관심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우거져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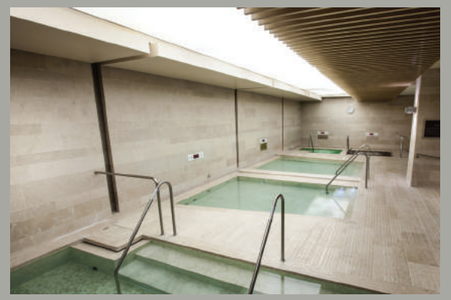
개인 | 강정자, 구영회, 권상문, 김계정, 김광임, 김난자, 김명순, 김성식, 김연남, 김영만,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자, 김은곤, 박노옥, 박병일, 박수임, 박온배, 박정희, 백광현, 서양자, 서오순, 서은자, 선우정자, 송은호, 신선화, 오명, 오옥환, 우인성, 유문상, 유송자, 윤갑석, 윤영학, 이문숙, 이선경, 이선엽, 이승연, 이영자, 이용희, 이유리, 이정재, 이정희, 이지윤, 이춘애, 이혜숙, 이혜정, 익명, 장원정, 정동화, 정인조, 정일모, 정재원, 조은경, 지정임, 채순교, 채치범, 최만임, 한상헌, 허순영, 홍사중, 홍순남, 황재영 / **단체** | 황화방(더 클래식 500 이화여고 동문회)

정기후원 및 활동 문의 | 02-2218-5549(김인우 사회복지사)/**정기후원계좌** | 국민은행(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9-500-500-5000

GYM

GYM

SWIMMING


SPA

FOR YOUR
HEALTHY LIFE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 90 Neungdong 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 +82-2-2218-5800
WEBSITE : www.pentaz.co.kr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안내문의 : 02) 2218-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